

# 쓰기의 이해 01

---

3주차

송인성 교수

## 4. 초고 작성(37p)

# 4. 초고 작성

- 개요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작성**(언제든지 수정 가능)
- 글을 작성할 때는 **결속성(통일성)**이 중요함
  - 1) 시작과 연결된 마무리
  - 2) 소주제문으로 결속된 단락 구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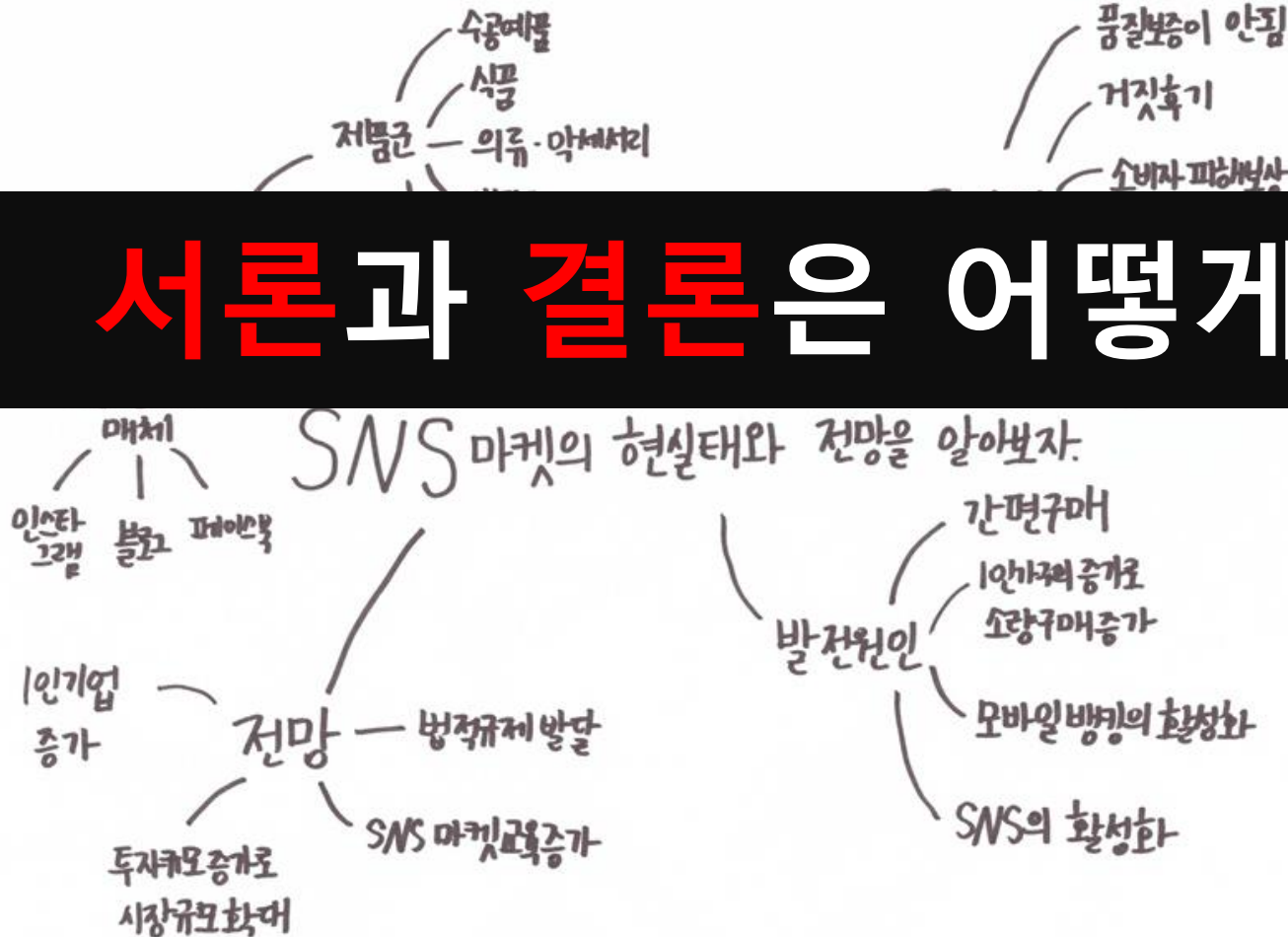
SNS 마켓의 발전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서론

# 서론과 결론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4. SNS 마켓의 전망

5. 결론



서론 쓰기

# 1) 시작과 연결된 마무리

- 한편의 글은 '서론'(시작), '본론'(중심), '결론'(결말)의 구조를 지니는데, **글의 주제가 드러나는 시작**과 **주제를 마무리하는 결말**이 한 줄에 껴어 있어야 함

→ '작은 선행이 불러오는 행복의 크기'(38p)

# 글의 서두 시작하기

-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글의 서두를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 개요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문장으로 **직접 글을 쓰는 것은 어려움**

“더욱 산문에서 첫머리 몇 줄, 몇 줄이라기보다 제 1행의 글, 다시 1행이라기보다 첫 한 마디, 그것을 잘 놓고 못 놓는 것이 그 글의 순역(順逆), 길흉(吉凶)을 좌우하는 수가 많다. 너무 덤비지 말 것이다. 너무 긴장하지 말 것이다. 기(奇)히 하려 하지 말고 평범하려 하면 된다.”

이태준, <문장강화> 중에서

# 서론의 중요성

- 글의 **방향성**을 제시
- 본론과 결론으로 내용과 주제가 **이어지도록** 하는 **지침**의 역할
- 글쓴이가 글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가장 먼저** 나타남
- 한 편의 글에 있어서 **첫인상**을 좌우함



# 서론의 구성 요소

1.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한다. (주제 제시/본론 안내)

2. 왜 그것을 다루는지 밝힌다. (필요성 제시)

3.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야 한다. (관심 끌기)

# 매력적인 서론 쓰기

예문 1,2,3

- 1) 인상적인 일화를 제시
- 2)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3) 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
- 4) 시사적인 사건이나 현상을 제시
- 5) 통계나 수치를 제시
- 6) 개념을 진술
- 7) 명언, 유명한 말을 인용

1.

2004년 여름, 멕시코 만에서 세력을 일으킨 허리케인 찰리가 플로리다를 휩쓸고 대서양으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 스물두 명이 목숨을 잃고 11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뒤이어 가격폭리 논쟁이 불붙었다.

올랜도에 있는 어느 주유소는 평소 2달러에 팔던 얼음주머니를 10달러에 팔았다. 전력 부족으로 8월 한여름에 냉장고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하던 많은 사람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값을 고스란히 지불했다. 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전기톱과 지붕 수리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건설업자들은 지붕을 덮친 나무 두 그루를 치우는 데 무려 2만 3000달러를 요구했다. 가정용 소형 발전기를 취급하는 상점에서는 평소 250달러 하던 발전기를 2000달러에 팔았다. 일흔일곱의 할머니는 나이 든 남편과 장애가 있는 딸을 데리고 허리케인을 피해 모텔에서 묵었다가 하루 방값으로 160달러를 지불해야 했다. 평소 요금은 40달러였다.

- 마이클 센델, 이창신 역,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3쪽.

2.

철학의 가치는 사실상 주로 그 불확실성에서 찾아야 한다. 철학적 소질이 없는 사람은 일평생 상식에서 생겼거나, 연령 또는 국적에 의한 습관적 신념에서 생겼거나, 신중한 이성의 협력 또는 동의가 없이 마음속에서 자라난 확신에서 생긴 편견에 사로잡힌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세계는 명확하고 유한하고 분명하다.

철학은 스스로 제기한 의심에 대해 확실성을 갖고 무엇이 참된 대답인가를 말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들의 사고를 확대하고 관습의 전제로부터 해방시키는 많은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사물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우리들의 확실성의 느낌을 감소시키면서, 철학은 사물은 어떤 것일 수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을 크게 증대시킨다. 철학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회의의 영역에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람들의 약간 거만한 독단론을 제거하고 친숙한 사물을 친숙하지 못한 측면에서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경이감을 생생하게 유지한다.

- 버트런드 러셀, 「철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2014.

3.

지난 며칠간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를 맞히려고 통계 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 틀림없이 삼파전 일 것이기 때문이다. ‘복’, ‘건강’, ‘행복’. 그런데 유독 이번 새해에는 ‘행복’이 강세다. ‘국민행복시대’라는 표어를 들고 대통령에 당선된 분이 계셔서일까?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의 신임 교육감도 신년사에서 ‘행복’을 꺼내들었다. “행복한 학생이 성공한다. 이것이 서울 교육이 행복교육이어야 하는 이유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행복이 성공을 위한 수단이란 뜻인가? 그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교실은 별로 행복해질 것 같지 않다.

- 장대익, <행복해지는 법은 다양하다>, 《한겨레신문》, 2013년 1월 2일.

# 학술적인 글의 서론: 필요한 3가지 요소

1. 글쓴이가 선택한 주제와 대상은 무엇이고, 얼마나 논의할 만한 필요성이 있는가  
<연구 목적/필요성, 의의>
2. 자신이 논의할 대상에 대한 소개 <연구 대상/범위>
3. 글쓴이의 시각 <방법론/이론적 배경>

# 결론 쓰기

# 결론의 완성

서론과 본론을 잘 썼는데 마무리가 잘 완성되지 않으면 글이 설득력을 잃게 됨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결하고 자연스럽게 정리해주는 것이 필요

결론을 읽은 후에 독자에게 여운이 남고 주제가 더욱 선명하게 기억될 수 있도록 함



# 글의 맺음말을 작성하는 방법

예문 4,5,6

- 빈번히 사용되는 몇 가지 사례

- 1)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의 핵심을 간명하게 요약·정리
- 2) 본문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사항을 과제로 제기
- 3)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전망 혹은 대안을 제시(짧은 글)
- 4) 주제의 강조를 위한 인용이나 사례 제시

4.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의 절반이 50대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대 청년층이 8%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기형적인 인력구조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구 고령화 못지않게 생산현장의 노쇠화는 미래 우리 경제의 큰 짐이다.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산업현장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탓이다. 이들이 한꺼번에 퇴직할 경우 숙련된 기술 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불 보듯 뻔하다. 이들의 현장 경험을 전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본론 생략)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우리가 10년 안에 풀어야 할 주된 과제 중 하나다. 은퇴 후 일자리와 사회복지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산업현장에는 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고임금 구조를 극복하려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도 대안의 하나다. 우리 사회의 만성적인 생산직 기피 현상도 극복해야 한다. 향후 20-30년 후를 내다본 신성장동력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과 대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업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산업현장의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 <산업현장의 노령화 대비책 서둘러야>, 《경향신문》, 2013년 9월 9일.

5.

신라 천년 사직을 뒤로 하고 등을 보이고 떠난 마의태자, 시집가는 누이의 뒷모습, 수평선 위로 한 점이 되어 사라지는 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울음소리만 차츰 작아지는 기러기, 늙은 아버지의 눈빛, 깜빡거리며 줄어드는 촛불, 곱게 물드는 석양과 단풍 등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거기서 소멸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때가 바로 우리 삶에서 문학이 반짝이는 순간이다.

꽃은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해는 지는 빛이 곱습니다.

노래는 목마친 가락이 묘합니다.

님은 떠날 때의 얼굴이 더욱 어여쁩니다.


- 한용운, <떠날 때의 님의 얼굴>

현재 지구상에는 6천8백 개 정도의 언어가 있는데, 평균 2주에 하나씩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그 밖에 하루하루 우리 주위에서 사라지는 것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사라지는 것들에 문학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끝내 자신도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 이승수, <사라지는 것들 앞의 찬란한 슬픔>, 《문학이 태어나는 자리》, 산처럼, 2009. 48-49쪽.

6.

4차산업의 변화와 발전의 빠른 속도에 맞춰 VR·AR 기술 역시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언택트 문화가 더욱 떠오르게 되었고, 그중에서도 VR·AR 쇼핑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기에 이에 따른 편리함은 사람들에게 더욱 크게 다가왔다. 이 글에서는 VR·AR 쇼핑의 기술적인 부분에 중심을 두고 글을 전개하였는데 VR·AR 쇼핑의 시장·경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는 추후 과제로 삼는다. 앞으로 공간을 넘어 쇼핑에 즐거움을 주는 VR·AR 쇼핑은 더욱 발전된 기술을 통해 보다 다양한 생활공간 속에서 사용될 것이고,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의 활성화 등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다.

 학생 글, 2020

# 1.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의 핵심을 간명하게 요약·정리

- 가장 흔히 사용하는 맺음말 쓰기의 방식으로, 지금까지 **본론에서 전개된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 이러한 맺음말을 통해 글 전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한 눈에 조망**해 볼 수 있음
- 지엽적인 것은 과감히 버리고, 글 전체의 논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핵심 사안**을 **정리**해야 함

## 2. 본문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사항을 과제로 제기

- 글의 논지 흐름을 고려할 때 다른 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펼쳐야 할 내용의 경우 **본론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사항**이 생기기도 함
- 이때 맺음말에서 논의가 미진한 사항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회를 통해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도 무방함
- 즉,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맺음말을 쓸 수 있음

### 3. 앞으로 내다볼 수 있는 전망 혹은 대안을 제시

-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암시를 언급함
- 지금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미래에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전망하고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함
-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상투적 전망이나 현실과 거리가 먼 대안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 4. 주제의 강조를 위한 인용이나 사례를 제시

- 잘 알려진 글의 일부나 주제에 부합하는 경구 내지 명제를 인용하여, **독자의 공감대**를 넓히고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이 방식으로 글을 쓸 때는 글쓴이의 최종적인 견해를 **강조하거나 심화하는 차원**에서 인용이 이루어져야 함



# 결론의 유의사항

1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안정적인 결론이 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

2

서론, 본론의 내용과 어울리는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작성

3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독자에게 뚜렷한 인상을 제시

4

본론을 되풀이하는 진술을 피함

## **2) 소주제문으로 결속된 단락 구성하기(p.39)**

## 2) 소주제문으로 결속된 단락 구성하기

단락이란?  
(문단)

1

내용(화제)를 기준으로 토막 낸 글의 구성 단위

2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장의 묶음

3

단락은 1단락 1화제로, 하나의 단락은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함

## 2) 소주제문으로 결속된 단락 구성하기



- 글을 쓸 때 화제가 바뀌게 되면 행을 바꾼 후 첫 문장을 들여 써야 함. 즉, 행 바꿈과 들여쓰기를 분명히 해서 단락이 바뀌었음을 나타내야 함
- 단락은 통일된 하나의 이야기, 즉 하나의 화제를 기준으로 토막 낸 글의 단위. 따라서 화제가 달라질 때마다 새로운 단락이 구성되어야 함
- 단락의 길이는 정해진 것이 없으나, 긴 단락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며 독자에게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음

# 학습 활동

- 다음에 제시되는 글의 주요 화제를 찾아 몇 개의 단락으로 써야 하는지 언급하십시오.



**[한국일보 사설] “설마 보이스피싱일까” 하루 134명 당하고 한해 4,400억 뜯겼다.**

지난해 피해액, 전년 대비 82% 증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도보다 82.7% 증가한 4,440억원이었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피해자수 또한 57.6% 증가한 4만8,000여명이다. 하루 평균 134명의 피해자가 양산된 셈이다.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주춤하는 듯 했으나,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최근 2년간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사기유형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 대출 상품을 권하며 대출금을 가로채는 ‘대출빙자형’이 70%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출빙자형은 신규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는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해당한다.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자산보호조치를 위해 송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형’이 뒤를 잇는다. 최근에는 사회관계망(SNS)서비스나 모바일 메신저에서 지인을 사칭해 급하게 금전을 요청하는 ‘메신저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당하기 쉬운 수법이라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사실 고단수 사기는 아니다. “나만큼은 그런 허술한 수법에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마음가짐을 파고 든다. 최근에는 피해자 휴대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수법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엔 저축은행 직원으로부터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앱을 깔았다가 수천만 원을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었더니 그 전화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바로 연결돼 꼼짝없이 사기 당한 경우도 있었다. 보이스피싱은 돈이 아닌 ‘사람’을 노리기도 한다. 범죄조직임을 숨기고 ‘고수익 보장’을 내세우며 인출책과 조직원을 모집한다. 페이스북과 같은 사회관계망(SNS)서비스에 ‘월 500만원 보장, 해외 취업’ 등의 문구를 내건 구인광고가 있다면 보이스피싱 조직원 모집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20대가 주요 타깃이지만, 미성년자 또한 예외는 아니다. 범죄 조직인 것을 모르는 채로 들어갔다가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지나친 고수익은 늘 덧일 가능성이 크다.

# 단락의 구성

- 보통 하나의 단락은 주제문장과 이를 지지하는 뒷받침 문장들로 구성

## 주제 문장

주제문장은 중심 생각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반드시 단락의 요점을 담고 있어야 함

## 뒷받침 문장

뒷받침 문장은 중심 개념을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주제문장과 뒷받침문장의 관계가 긴밀해야 단락의 완결성이 생김

## 다음 문단에서 이상한 부분은? (P. 39)

셋째, 글쓴이는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 예전 IMF 시절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 금이 들어 있는 반지나 장신구를 기부했던 적이 있다. 우리는 반지나 장신구가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쓰일 것이라고 믿고 기부했었기 때문에 경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행동을 통해 개인의 먹고 살 궁리에 대한 것 자체가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제 문장과 뒷받침 문장

- 주제 문장은 필자가 그 단락에서 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
-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제 문장이 정해졌다면 그것을 쉽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이야기로 뒷받침문장을 만들



• 뒷받침문장은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것을 선택하여 쓰면 됨

• 주제문에 대한 예시(사실, 사례, 통계), 보충 설명 으로 제시

# 주제 문장 + 뒷받침 문장

## 1. 두괄식(연역법)

- 논지가 흐트러지지 않게 글을 쓰기 좋음
- 독자도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음
- 중심 문장이 독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2. 미괄식(귀납법)

- 필자와 독자 모두 논리적인 글쓰기 방식과 사고 방식을 익힐 수 있음
- 중심 생각을 독자가 쉽게 공감할 수 없을 때, 필자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여 독자를 이끌 수 있음

단언하건대 남녀평등 문제는 앞으로 별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현재 출산율은 1.17명이다. 한 부부가 아들과 딸 중 하나를 낳아 기른다는 걸 의미한다. 아들선호사상이야 사라지지 않겠지만 평등 문제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높아진 평등의식도 긍정적 요인이다. 최근 각계에 여성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이런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다. 내 딸만큼은 나처럼 키우지 않겠다는 한국 어머니들의 한(恨)이 높은 여성 교육 열기로 이어지고 쌓인 결과이기도 한다

홍찬식, 2005, 「여성이 경쟁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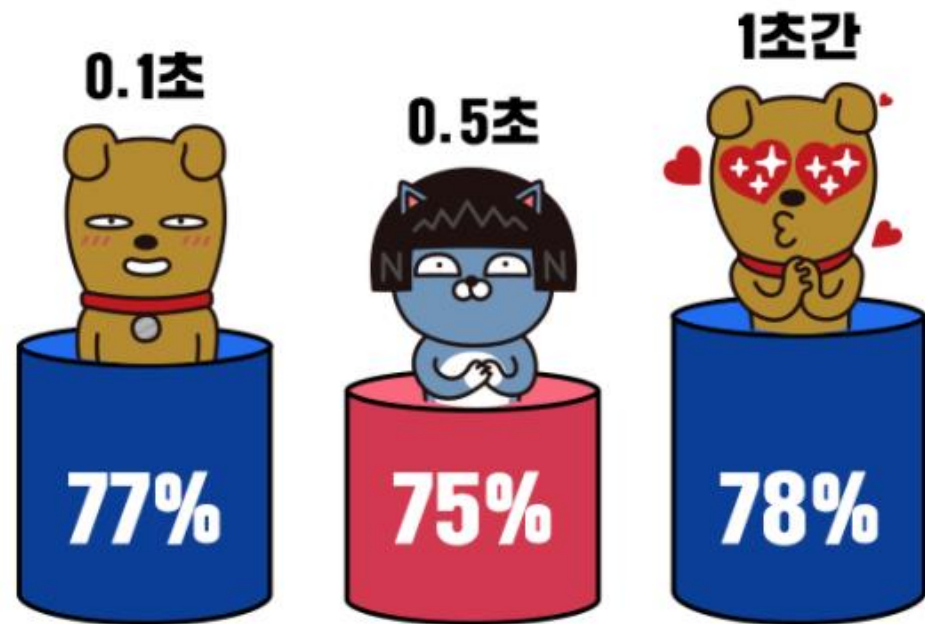
삼가 생각하옵건대, 창업한 군주는 자손들의 모범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이 시대의 역사를 열람하시면 대를 이은 임금이 이를 구실로 삼아 반드시 우리 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며 우리 할아버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서로 이어받아 당연한 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사관이 감히 사실대로 기록하는 붓을 잡겠습니까? 사관이 사실대로 기록하는 필법이 없어져 아름다운 일과 나쁜 일을 보여서 권장하고 경계하는 뜻이 어둡게 된다면, 한 시대의 임금과 신하가 무엇을 꺼리고 두려워해서 자신을 반성하겠습니까? 오늘날 역사를 열람하는 일은 자손들에게 좋은 계책을 전해 주는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 글의 제목 짓기

# 제목의 중요성

- 글의 제목은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노출되는 부분으로, 소개팅에서의 **첫인상**과 동일
- 독자가 책의 제목을 보았을 때, 그 글을 읽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함

## 첫인상 얼마나 빨리 결정되는가?



<첫인상 형성 비율>

살맛이니까 청춘이다  
 맛없으니까 청춘이다  
 혼란스러니까 청춘이다  
 희망이니까 청춘이다  
 무관개리니까 청춘이다  
 그래서 청춘이다

이프니까

• 김난도 저음 •

청춘이다

인생 앞에 홀로 선 젊은 그대에게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고의 강의, 최고의 멘토  
 김난도 교수의 인생 강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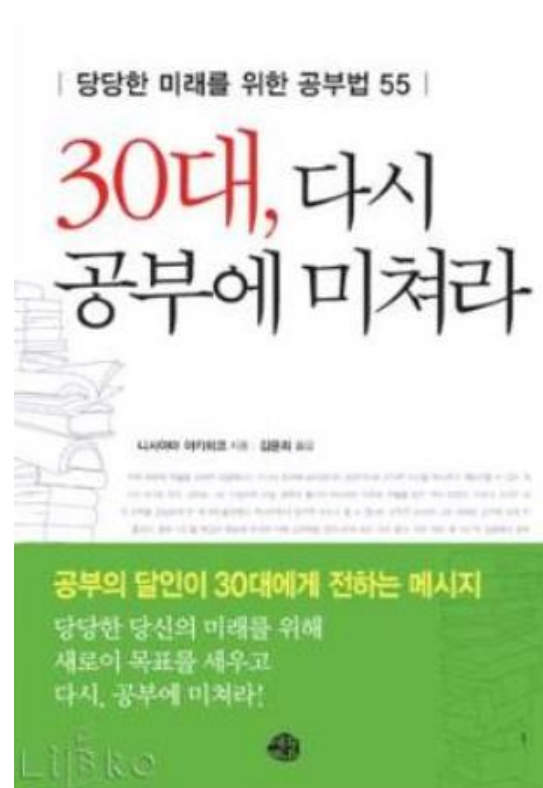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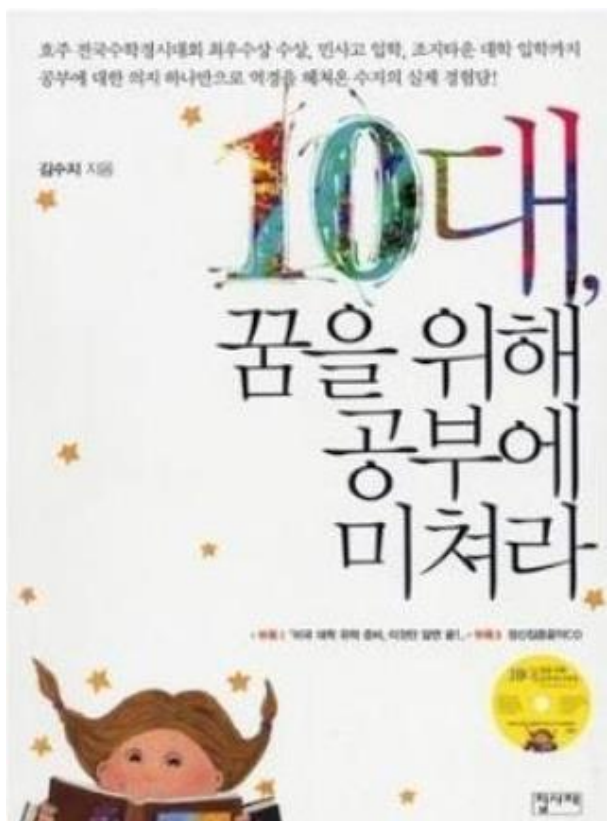
# 아프니까 청춘은 아니다

이명준 저음

청 춘 이 왜 아 파 야 만 하 는 가 ?

날날이 밝히는 청춘들이 아플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청춘들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과 진심 어린 조언

북투어스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최우식 박소담 장혜진

제공/제작 CJ엔터테인먼트 제작 (주)바른손이엔터테인먼트 15세 관람가

2019 봉준호 감독 작품 | 5월 30일 대개봉

# 기생충



# 요즘 잘나가는 책의 제목은?



국내도서

외국도서

eBook ▾

웹소설

기프트 ▾

음반 ▾

중고장터



베스트 | 신상품 | 이벤트 | 사은품 | Picks

## 이슈 & 트렌드를 읽다 요즘 이 책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심리 수업 365  
결국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이었다. 삶을 바꾸는 1일 1페이지 심리 수업!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 국내 최고의 뇌 과학자, 정신과 의사 이시형의 세로토닌 결정판!



왕초보도 바로 돈 버는 부동산 경매의 기술  
오르기만 하는 부동산, 로또보다 힘든 청약 당첨.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경매가 답이다!



조용히 관심 끄는 사람의 말투  
하고 싶은 말 대신 듣고 싶은 말

- UN인권위원, 자유를 빼앗기다
- 자산어보에 대해 물렸던 4가지
- 아이를 현명하게 사랑하나요?
- 기록함으로써 기억합니다

요즘 이 책

핫 이슈

새로나온책

기획/테마

eBook

sam

한정특가

# 글의 제목 짓기

- 좋은 제목은 독자를 유혹하는 도구
- 글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핵심 메시지
  - 내 제목은 호기심을 유도하는가?
  - 내 제목은 독자가 듣고 싶어하는 말인가?



좋은 제목을 짓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

# 좋은 제목을 검증하는 기준

구분	내용
구체성★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야 함
단순성	많은 것보다는 핵심적인 것 한두 가지만 간결하게 전달
의외성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제목이나 허를 찌르는 제목일수록 머릿속에 각인될 가능성이 높음
신뢰성	읽는 사람이 직접 확인하여 인정할 수 있어야 함
감성	읽는 사람이 무언가를 느낄 수 있어야 함



## [조별 활동]



제목: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만들었다. 그들은 달리기, 오르기, 날기, 수영 등으로 짜인 교과목을 채택했다. 동물학교는 행정을 쉽게 하기 위해 모든 동물이 똑같은 과목을 수강하도록 했다. 오리는 선생보다 수영을 잘했다. 날기도 그런대로 해냈다. 하지만 달리기 성적은 낙제였다. 오리는 학교가 끝난 뒤에 달리기 과외를 받아야 했다. 달리기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그의 물갈퀴는 닳아서 약해졌고, 수영 점수도 평균으로 떨어졌다. 토끼는 달리기를 가장 잘했지만, 수영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렸다. 다람쥐는 오르기에서 탁월한 성적을 냈지만 날기가 문제였다. 날기반 선생이 땅에서 위로 날아오르도록 하는 바람에 다람쥐는 좌절감에 빠졌다. 날기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솜씨를 보였지만 다른 수업은 아예 참석도 하지 않은 독수리는 문제 학생으로 전락했다. 결국 수영을 잘하고, 달리기와 오르기, 날기는 약간 할 줄 알았던 뱀장어가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받아 학기 말에 졸업생 대표가 되었다.

## 5. 점검 및 수정(p. 40)

# 5. 점검 및 수정 (pp. 40-43)

---

1. 주제를 잘 드러냈는지 점검하기

---

2. 구성이 적절한지 점검하기

---

3.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

# 5. 점검 및 수정 (pp. 40-43)

1. 주제를 잘 드러냈는지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는가?</li><li>• 주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 있지는 않은가?</li><li>• 해당 사건이 필자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나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어 있는가?</li><li>• 글의 내용이 잘 드러나게 제목을 잘 지었는가?</li></ul>
2. 구성이 적절한지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차 작성이 잘 되었는가?</li><li>• 문단과 문단의 연결이 논리적이고 자연스러운가?</li><li>• 소주제문에 따라 단락이 잘 나누어져 있는가?</li><li>• 도입과 마무리의 내용이 적절한가?</li></ul>
3.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문법적인 오류(맞춤법, 띄어쓰기)는 없는가?</li><li>• 문체의 통일이 이루어져 있는가?(문어/구어, 존대/비존대)</li></ul>



# 글을 돋보이게 만드는 9가지 퇴고 기준

---

1. 주제를 벗어나지 않았는가

2. 빠뜨린 내용은 없는가

3. 군더더기 표현은 없는가

4. 표현은 구체적인가

5. 문장은 어법에 맞는가

6.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올바른가

7. 인용 방법은 적절한가

8. 문장부호는 제대로 달았는가

9. 소리 내어 읽어 보아도 자연스러운가

# 동료 피드백 진행

## ■ 동료 피드백 수행 시 주안점

- 피드백의 목적은 글의 개선
- 상호 이해와 존중의 태도를 갖추기
- 글을 서로 바꾸어 읽은 후 장점과 보완점을 논하기